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선정



만년필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기업 봉봉
당은 매년 '봉블랑 문화예술 후원자 상'을 시상한다. 올해로 20년째인 이 상은 예술가를 직접 후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를 후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그동안 전 세계 12개국에서 16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영국의 찰스 황태자, 스페인의 소피아 왕비, 일본의 오노 요코 등 유명인사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04년 금호문화재단의 고(故) 박성용 회장이 최초로 수상했고 그 후 박영주 이건 문화재단 이사장, 김영호 일신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받았다.

올해 수상자는 크라운-해태제과 윤영 달 회장이다. 윤 회장은 우리 국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악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윤 회장의 각별한 애정은 경제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지난달 열린 아트광주 조직위원회장을 맡아 불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나는 윤 회장을 통해서 아트경영, 특히 AQ(Artistic Quotient)경영의 진면

목을 확인했다. AQ는 예술가적 지수를 말한다. 종래의 감성지수(EQ)가 예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의미였다면 AQ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창조적 능력이다.

경기도 양주시 송주 유원지 인근 100만 평에 조성중인 통합 문화예술 테마파크인

있는 약 6Km 길이의 산책로 곳곳에 나무와 돌로 만든 예술작품이 탄생했다. 작품을 직접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적 지수가 높은 직원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문화CEO의 경영철학이 생생히 실천되고 있는 현장인 셈이다.

시장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문화 투자와 후원도 얼어붙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예술 단체마다 기업후원이 끊겼다가며 심각성을 호소한다. 기업메세나에 공감하여 문화마케팅을 해온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기업은 경기가 어려

후원하고 나눌 줄 아는 문화기업은 크라운-해태제과와 같은 큰 기업에서나 가능할까. 그러나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경우를 보면 희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모임은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기부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008년 출범以來 지금까지 88억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재벌들이 아니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인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다.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전 재산 1억 원을 기부하고 회원이 된 대학원생도 있다. 이들이야말로 부의 진짜 가치를 타득하여 진정성 있는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규모보다는 CEO의 마인드로부터 비롯된다. 무엇보다 CEO 자신이 문화를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AQ경영은 아니더라도 직원들과 함께 훌륭히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게 된다.

깊어가는 가을, 고단하고 꽉찬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위해 후원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문화CEO를 보고 싶다. 후원과 나눔이야말로 사회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력, 소프트파워가 아닌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기업, 문화 CEO를 찾습니다

'아트밸리'가 윤 회장의 AQ경영 아지트다. 그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만들자는 주변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소수만 즐기는 골프장보다 노인, 장애인들도 쉴 수 있고 고객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예술공원으로 만드는 일이 더 가치있는 일로 생각한 터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소그룹으로 나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조각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니 각종 창의적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 결과 아트밸리 산자락을 둘러싸고

울수록 돋보이게 마련이다. CEO가 직원들이 문화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문화적 마인드가 충만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는 결국 회사를 문화적 기업으로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연수나 교육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자극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체험의 반복으로 형성된 AQ라는 창조능력은 고객의 마음으로 확장되고 전염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 기업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 집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을 뿐 노모 부양이나 그들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밖의 조항들은 비법률적인 것들이라고 하여 표시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이 같이 법률만을 적용해 판결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률만을 적용해 판단하기보다 민사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협약을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에는 판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올해 4월에는 광주지역에도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어 오랜 기간 법관, 변호사로서 일했던 분들이 전문조정위원으로서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법원에는 판결로만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같이 많은 이들이 민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관과 함께 찾음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길 기대한다. 〈광주지법 판사〉

조정재판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이곳 장흥지원에서 시험 실시한 이래 매년 두 차례 가량 실시하는데, 이번이 10번째이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에 살고 있어 노모를 모시지 못하던 장남(원고)과 시골에서 홀로 된 채 노모를 모시는 막내며느리(피고) 사이에 시골집 소유권을 놓고 생긴 분쟁이었는데, 자녀 중 누가 노모를 부양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얹혀 있는 사건이었다.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일도양단적인 관계로써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건이었다. 장흥에 거주하는 100명의 배심원단을 성별·연령·직업 등에 따라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서 서너 명씩 총 30명의 배심원 후보를 확정해 조정기일에 소환했다.

조정기일에서는 이들 중 원고·피고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과 원고, 피고가 배심원 청탁을 한 사람들을 제외한 30대부터 70대까지 여자 5명, 남자 7명으로 된 12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재판장과 당사자들로부터 사

건의 개요와 주장, 법률적인 문제들을 모두 들은 뒤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질문하도록 했다.

"그 집은 원래 누구의 소유였느냐?", "왜 시골로 내려와 노모를 모시게 되었느냐?"라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12명의 배심원은 평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문제가 된 시골집은 피고가 소유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시한다.

셋째,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자녀는 피고가 10년 이상 노모를 모셔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넷째, 노모는 당분간 장남인 원고가 모시되 피고는 노모나 다른 가족들이 시골집을 방문할 때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한다.

다행히 원고와 피고 모두 배심원들이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배심원단에게서 제시한 조정안 중 시골집의 소유관계를 정한 첫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만일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 하순에 발표한 각급대학의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은 85.5%를 기록하며 각각 60.7%, 54.5%를 기록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폴리텍대학의 성공요인을 독특한 산학협동활동에서 찾는다.

첫째, 현장기술의 변화추이를 항상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담는 현장중심교과과정, 둘째, 교수 1인당 15명의 학생을 책임 지도하는 소그룹지도제, 셋째, 졸업생이 취업할 기업 10개를 책임 관리하는 기업전담제가 취업률 85.5%의 신화를 이끌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기초가 되는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 사회의 뿌리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즉 이공계에 뜻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가장 비独한 땅, 그곳이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인 것이다.

〈한국폴리텍V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뿌리기술'은 원초적 경쟁력이다

한국 사회는 왜 이리도 대학 졸업장에 목的地는 것일까.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 빼어난 소질과 재능을 갖고 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부머리'가 좋으면 학문의 길에서, '일며리'가 좋으면 직업현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무한히 펼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헛들리지 않고 좋은 암배를 뱉으며, 원천에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끓이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들에게 일머리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권하고 싶은 직업은 우선 뿌리 깊은 기술, 몸통기술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끌림 현상으로 실

쾌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 유망하다는 학과전망에 학교들은 바빠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은 너나없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는 미성숙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경쟁만 치열한 불안정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 이 시대의 혁명한 청년들은 부디 이런 전례를 교훈 삼아 뿌리가 단단한 기술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에는 튼실한 몸통에서 건강한 결가지들이 돌아나 곧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기술의 창조도 이와 같다. 기반 기술, 몸통기술에서 새로운 기술이 파생, 응·복합 되어 신기술이 창조된다. 그런 뿌리기술을 익히고 노력하는 이는 자연스레 신기술의 선구자가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폴리텍V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한식 통달해도 한식조리기능장 되기 어려워서야

한식 외에 양식이나 중식, 일식 중 한 가지를 더 택해야 조리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우수한 한식 조리사들이 조리기능장 시험에서 몇 번씩이나 떨어진

경우를 수없이 봤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한식조리기능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강석훈·광주 남구 주월1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정부 외면하는 F1, 이제 도민의 '힘' 뿐이다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광에서 열리는 이번 F1 대회는 전남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활한 대회 운영과 교통 편의, 숙박시설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6만 명이 넘는 관중·동원에 도 불구하고 대회 운영 미숙과 교통 편의, 숙박시설 미비, 마케팅 실패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나 이번 대회에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영암 F1이 도민의 빛으로 치르는 만큼 정부에 보람듯이 치르는 국내 외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3일 동안 세계 3대 메인 스포츠를 시청하기 위해 지구촌의 이들이 집중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주장 건설비나 운영비 등 지원을 철회하려 외면하고 있다.

영암 F1이 도민의 빛으로 치르는 만큼 정부에 보람듯이 치르는 국내 외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3일 동안 세계 3대 메인 스포츠를 시청하기 위해 지구촌의 이들이 집중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주장 건설비나 운영비 등 지원을 철회하려 외면하고 있다.

'도가니 대책'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지난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으로 국민적 공분(公憤)이 커지자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등 떠밀려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에서 시민시민(晚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한 조항이다. 친고죄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장애인의 경우 가해자를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같은 학생들이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한 것도 주목할 만

한하다.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항거 불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 결격·당사 퇴직 사유를 벌금형으로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가해 혐의자는 교단에서 즉각 퇴출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재탕'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제외한 것은 아쉽다. 일본, 영국, 미국의 다수 주(州)가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자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

이번 대책이 과거의 예처럼 일과성에 그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공소시효 폐지 등 추가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치광이들에게 경례를 (Here's to the crazy ones), 부적응자, 반역자, 말썽꾸러기,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 그들은 규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상(status quo)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개인용 컴퓨터(PC)의 창시자이자 천재적 IT혁명가인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애플의 TV 광고 카피다. 1997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의 CEO로 복귀한 잡스가 추락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내건 슬로건 '다른가지로 생각하라'(Think different)가 그 주제다.

아인슈타인과 마틴 루터 킹, 밥 딜런, 존 레논, 에디슨, 닐 앤스트론, 간디, 히치콕, 피카소 등이 차례로 등장하는 이 광고 영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은 언제나 우직하게(Stay hungry, Stay foolish),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라"는 그의 어록은 긴 울림을 남긴다.

이제 잡스가 우리에게 묻는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앉아서 변화를 강요당할 것인가'. 당신이 답할 차례다.